

‘정상’과 ‘병리’에 대한 철학적 사변

조르주 깡귀렘의 「정상과 병리」

이광래

강원대 교수·프랑스철학

「출판저널」은 ‘내가 읽은 원서’의 소개를 주문했지만 필자는 ‘내가 번역중인 원서’—조르주 깡귀렘(Georges Canguilhem, 1902~)의 「정상과 병리(*le normal et le pathologique*, 1966)」를 소개하려 한다. 굳이 번역의 동기를 밝히자면 서너가지쯤 된다.

우선 미셸 푸코에 대한 연구는 깡귀렘의 저서들에 대한 탐독과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푸코 평전」을 쓰기 시작한 필자는 내친 김에 양자의 사상적 혈연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출판해야겠다는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푸코만큼 훌륭한 스승을 많이 만난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그에게 영향을 준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긴다면 당연히 깡귀렘을 첫번째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이다.

깡귀렘의 책을 읽고 번역하는 이유

또 한사람의 스승인 이블리르프의 자리를 물려받는 폴레쥬 드 프랑스의 취임강연에서까지 푸코는 깡귀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였다. 즉 “바로 깡귀렘 선생님 덕분에, 나는

과학사란 여러가지 발견의 연대기가 아니라 이론적인 모형들과 개념적인 도구들의 일관되면서도 변형가능한 하나의 총체로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토로한 것이다. 또한 푸코는 1978년에 출판된 「정상과 병리」의 영어판에서도 “지난 15년 내지 20년 동안 깡귀렘의 저작이 그것을 기피했거나 반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지할 수 있었던 중요성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책의 서문을 별도로 씌으로써 스승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기도 했다.

물론 푸코에 대한 깡귀렘의 평가와 애정도 그에 못지 않았다. 특히 푸코가 죽은지 4년뒤인 1988년 1월 9일 「광기의 역사」에서 「쾌락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푸코사상의 일관성을 복원하기 위해, 그리고 당시 일고 있던 푸코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파리에서 열렸던 ‘철학자 푸코’라는 심포지엄에서 깡귀렘은 개회사를 통해 제자에 대한 노스승의 지극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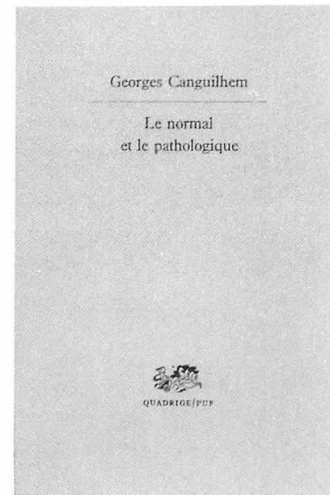
깡귀렘의 저서들을 읽고 번역하는 또다른

깡귀렘의 「정상과 병리」를 번역하고자 하는 이유는 「푸코평전」을 쓰기 시작한 이후 푸코와 깡귀렘의 사상적 혈연관계를 밝히고 싶다는 욕심과 함께 깡귀렘의 독특한 과학사와 과학철학에 대한 소개의 필요성 때문이다. 깡귀렘은 인간에 내재하는 생명의 규범을 강조함으로써 ‘정상’과 ‘병리’라는 의학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철학적 사변 속에서 답하려 하고 있다.

이유는 그의 독특한 과학사와 과학철학에 대한 소개의 필요성 때문이다. 깡귀렘은 바슐라르의 제자이지만 여러 면에서 그와 다르다. 바슐라르가 과학철학자에 가깝다면 깡귀렘은 과학사가에 가깝다. 바슐라르가 물리학과 화학을 과학적 합리성의 모델로서 간주한 반면 깡귀렘은 주로 생물학과 의학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특히 그것들의 현상의 역사나 이론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역사를 쓰는 데 주력해 왔다. 예를 들어 「17, 8세기에 있어 반사개념의 형성」이라는 저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푸코가 「임상의학의 탄생」의 골격을 개념사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이 책에서 얻어온 아이디어였다.

「정상과 병리」를 번역하는 마지막 이유는 현대의학이 과학기술화되어감에 따라 철학마저도 의학적 문맹을 강요받고 있거나 의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에, 이와 같은 문맹과 무반성으로부터 탈피해보기 위함이다. 깡귀렘도 이 책의 서문에서 그가 철학과 병행하여 의학공부를 시도했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인간의 구체적인 문제로서의 도입을 전적으로 의학에 기대했다. 의학은 소위 과학이라기보다 오히려 몇몇 과학의 교차점에 있는 일종의 기술이거나 예술처럼 생각되었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관심을 갖는 두가지 문제, 즉 과학과 기술의 관계 및 규범(normes)과 정상(normal)의 문제를 옮겨 위치설정하여 해명하기 위해 나는 직접 의학적 소양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의학과 철학을 통합하면서 의학을 혁신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의학의 혁신은 당연히 의학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철학자는 의학적 지식의 설명에 있어서 발견되는 (방법론상의) 개념적 오류에 대한 교정이나 개정에 공헌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의학은 종종 철학의 먹이거리가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장운동론이나 체액병리학, 갈레노스의 근육운동론, 그리고 브루세의 「생리학적 의학」의 변안과도 같은 폰트의 「실증 정치학 체계」와 깡귀렘의 「정상과 병리」가 그런 경우들이다.

‘생명에 내재하는 규범’ 강조

「정상과 병리」는 깡귀렘이 1943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제출했던 의학박사 학위논문 ‘정상과 병리에 관련된 몇개의 문제에 관한 시론(Essai sur quelques problèmes concernant le normal et le pathologique)」과 1963년부터 3년간 파리대학에서 강의한 ‘정상과 병리에 대한 새로운 고찰(Nouvelles réflexions concernant le normal et pathologique)」을 합쳐 출판한 책이다. 이 책에서 그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생명에 내재하는 규범’에 관해서이다. 그에 의하면 생명은 자기보존을 위해 자기조절기능을 지닌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에는 생명적 규범이라는 특유의 규범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과 병리의 개념도 이러한 견지에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증주의자들은 정상과

화제의 책

시집크기의 간편한 단편소설 시리즈



빠어난 단편소설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가들의 작품을 시집 크기의 간편한 판형으로 만든 ‘우리 시대의 소설, 소설가’ 시리즈가 도서출판 삼성에서 나왔다.

장편소설이 주도해온 국내소설 출판시장에 “단편소설의 신르네상스를 꽃피우겠다”는 것

이 이 시리즈의 기획이다. 그동안 단편소설은 문예지나 그밖의 매체를 통해 발표된 후 일정 분량을 모아 권권의 창작집으로 엮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기성·신진·신인 작가들의 단편소설이 완성되는 즉시 3~4편씩을 묶어 바로바로 독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출간된 단편선 10권을 구성하는 작가와 표제작품은 다음과 같다.

- ▲박완서의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 ▲이청준의 「흰철쭉」
-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이문열의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 ▲양귀자의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임철우의 「눈이 오면」
- ▲최윤의 「당신의 물체비」
- ▲하창수의 「수선화를 쬐다」
- ▲김소진의 「처용단장」
- ▲공선옥의 「그들이 사라진 저쪽」

도서출판삼성 / A5변형 / 각 104~152면/각 2800 원

병리를 통계적 평균을 기준삼아 정의한다. 즉 평균에 가까우면 정상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병리적이라는 것이다. 비사나 브루세, 그리고 콩트와 끌로드 베르나르도 모든 병기는 이변에 의해 도를 넘는, 또는 기능이 듣지 않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병리적 상태는 정상적인 메카니즘의 부조화이며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의 양적 변이, 즉 그것의 과대화 또는 희박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의 경우, 혈당 그 자체로는 병리현상이 아니지만 그 양에 의해 병리현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 상태와 병적 상태의 이와 같은 연속성 이론은 전염병이나 신경계의 병기에 대해서는 유효한 설명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깡귀렘은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당뇨병의 경우, 병기란 신장의 병기도 아니고 인슐린 분비의 감소에 의한 취장의 병기도 아니며 뇌하수체의 병기도 아니다. 병기를 몇가지 징후로 나누거나 그것들의 합병증으로부터 병기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주 성적 불능이나 불임에 시달리는 여자에게 갑자기 임신이 찾아온다면 "오! 분비의 짓궂은 장난이여!"라며 외치는 그녀의 기쁨의 절규는 분명 하나의 카타스트로프(대변이)가 아닐 수 없다. 이쯤되면 그녀는 병리적 상태가 생리적 상태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깡귀렘 이전에 골드슈타인(K. Goldstein)이나 로지에(H. Laugier)는 이미 통계적으로 얻어진 평균으로는 한 개인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인에 대한 의학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통계적 평균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게리스트(H. Sigerist)도 생물규범의 개인적 상대성을 주장한다. 그는 (전설이긴 하지만) 건강한 나폴레옹의 맥박수가 평균 70회에 크게 못미치는 40회였지만 정상이었다는 예를 들어 "평균에서 나오는 규범과 비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피험개체의 제조건과 비교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물론 깡귀렘도 정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권적 행동을 고려해야 하지만 병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국적 반응(reaktion catastrophique)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병리적 증상은 유기체와 환경간의 규범에 따르는 관계가 유기체의 변화에 의해 바뀌었다는 사

실의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병기는 유기체가 자기 고유의 환경 속에서 파국적 반응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뀔 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공습이 심했던 도시민에게서 위례양 환자가 현저히 증가했다는 보고가 아마도 적절한 실례일 수 있다. 이것은 다량의 호르몬 물질이나 유독물질이 주입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신피질의 구조적 변화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파국적 반응에 의해서도 일어남을 의미한다.

정상과 병리 사이의 문제

깡귀렘에 의하면, 건강이란 환경의 부정확함을 허용하는 폭이다. 생물의 생명은 그것이 설사 아메바라 할지라도 경협적 상황에서만 건강 및 병기의 카테고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과학(법칙)에 의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건강을 환경에 대한 반응 가능성의 조정행들이라고도 정의한다. 이에 반해 병기의 특징은 환경의 부정확함을 허용하는 폭이 감소하는 것이다. 깡귀렘은 1943년 쓴 '시론'의 결론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난시나 근시같은 신체결함은 농업이나 목축사회에서는 정상이지만 항해나 항공에서는 이상(異常)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인류는 이동수단을 기술적으로 확대했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을 이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이 동일한 기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장이 달라지면 정상이었던 것이 이상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생명력이 기술적 가역성과 환경지배의 욕구 속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건강이란 자신을 단순히 가치의 소유자나 보호자로 느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가치의 창조자나 생명규범의 설립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지닌 존재로 접근해가는 방식이다. 결국 정상과 병리에 대한 깡귀렘의 철학적 의문은 인간에 내재하는 생명의 규범으로 향해진 것이다. 그는 생명적 규범을 다시한번 강조함으로써 정상과 병리라는 의학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철학적 사변 속에서 답하려 하는 것이다.

바다저작권회사 출판기획팀이 출판 파트너를 세 분쯤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는 1989년초부터 일을 시작한 이래 거의 이백 권에 이르는 번역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느님, 듣고 계세요? 저 마가렛이에요>로 시작된 번역물 기획에서 수많은 '안타' 급 단행본과 <장미 정원> 같은 '홈런'에 해당되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번역물에서 출판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판단으로 1990년부터 국내 기획물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작품이 두 해 정도 준비 끝에 나온 <컴퓨터는 강통이다>였습니다. <강통...>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컴퓨터 책'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물은 1년 동안 준비했던

<못생긴 톱모텔 김동수의 차밍스쿨>이었습니다.



이 책으로 김동수 씨는 일약 TV 아침 방송에 사회자로 발탁되는 등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많은 부수가 팔려나갔지요.

또다시 그 이듬해 나왔던 <촌놈 이현세...> 시리즈는 여전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바다출판기획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상급의 일러스트가 그림을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글을 쓴 아주 새로운 개념의 성인용 책입니다.

또 한국판 콜라전쟁(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광고전으로 격돌한 이야기)이라고 할 만한 광고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통'과 '촌놈' 시리즈를 잇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책들에 대한 기획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저작물이든 - 종이 책에서 CD-ROM까지 - 보다 고급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바다저작권회사 출판기획팀을 만나 보십시오

- 출판 기획
- 취재 및 집필
- 전문 교열
- 편집 대행
- 저작권 위탁 관리